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6주일

제36권 23호(다해) 2016년 5월 1일

[목사]



< 성령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이 평화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근심 걱정도, 불안도, 두려움도 있을 까닭이 없고,
또 있을 수도 없다.

이 얼마나 고마운가?

모두가 이런 평화를 갈망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 주시는 평화를 받으려면 해야 할 일이 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분의 말씀을 잘 지키는 일이다.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것은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이며

사랑한다는 것이다.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락회 (장례식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동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성소후원회(첫 목요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30
금요일	성경공부(구약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학생 복사단 (둘째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넷째 토요일) 을뜨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후 4:00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제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제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양회/성모회/자모회/대전회 오후 1:00 3제주 - 요셉회 4제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3: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페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한국 교회의 역사

제2부 교회의 진로와 민족의 수난

1. 시대의 변화와 교회의 선교 정책 (1882~1911년)

1-2. 개항기 선교와 정교 분리 정책

개항기 조선 선교를 담당하고 있던 선교회는 프랑스의 파리 외방 선교회였다. 선교사들은 조선 사회에 정교 분리론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국주의 침략이 강화되던 시절, 선교 지역의 정교 분리 정책은 두 가지 상이한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가톨릭 선교 발전과 제국주의의 확산이 가질 수 있는 상호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었다. 반면에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주장하던 정교 분리 정책은 비인간적 식민지 통치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시도로도 강조되었다. 교회의 정교 분리 정책은 제국주의 세력의 식민 정책에 교묘하게 이용당하고 있었다.

한편 정교 분리론은 성속 이원론(聖俗二元論)과 일정한 관계를 맺으며 전개되었다. 당시 프랑스 교회의 보수적 신학 사조는 성속 이원론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 신학 사조는 조선에 주재하던 프랑스 선교사들에게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들은 성과 속, 현세와 천국을 뚜렷이 가르치고 교회는 성(聖)의 영역을 관장하고 정부는 속(俗)의 영역을 관장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당연한 결과로 선교사들은 조선의 정치 상황보다는 영혼 구제에 우선적 가치를 두게 되었다.

그런데 한일 합방을 전후하여 일본의 식민지 당국자들은 '정교 분리 원칙'을 내세워서 '선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대신 정치 문제에 관한 종교의 관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였다. 일본 식민지 당국자들은 조선의 침략에 대한 국제 여론의 악화를 막기 위해 조선 주재 선교사들에게 '선교의 자유'를 약속하면서 회유하였다. '한일 합방' 당시의 선교사들은 가톨릭이나 개신교를 막론하고, '선교의 자유'만을 보장해 준다면 어떠한 정치적 상황도 수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선교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일본 식민지 당국자들의 약속을 믿었다. 교회는 식민 당국이 선교 자유에 관한 자신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공언에 안심하였다. 또한 선교사들은 조선 왕조의 전제적 통치보다는 일본 식민지 당국의 개명된(?) 통치가 신자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당시의 선교사들은 신앙의 보편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복음 선포에 유리한 조건만을 찾았다. 그들은 신앙의 보편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선교 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적 개별 조건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그들은 타종파의 선교사와 비교해 볼 때 선교 지역의 복음 선포에도 성공하지 못하였다.

< 계속 >

토요 저녁 미사	(연) 서성용 베드로, 김종렬 아가비도 (생)
주일 낮 미사	(연) 이경용 야고보 & 이윤조 클라라, 서성용 베드로, 변세연 안드레아 & 변혜경 올리안나, 이용식 베드로 & 김준경 요한, 현시영 요셉, 고준희 제임스, 이강열 바오로, 정인식 베드로, 김학민 베드로, 이용완 & 홍숙녀 마리아 & 이숙자 루피나 & 이인환 & 이두재 마리아 (생) 박정미 클라라, 오세원 아타나시오 & 오해숙 루시아, 민석준 토마스 & 미애 & 민영준 마르코 & 영란, 박명자 크리스티나 & 이귀분 안나 & 임정자 분다 & 이룬다 테레사, 황윤재 베드로 가정, 김남호 올리오 & 최운정 레지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Apostles) 15,1-2.22-29

화답송 ○알렐루야.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 하리이다.○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제 2독서 요한 묵시록(Revelation) 21,10-14.22-23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복음 요한(John) 14,23-29<또는 17,20-26>

영성제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토요 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166	166	166
봉헌	255	255	255
성체	289	289	289
파견	327	327	327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것이다."(요한 14,23)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미사 때마다 사제를 통해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요한 14,27 참조)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믿음 안에서 서로에게 평화를 빌어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인사하신 것처럼 서로에게 평화의 축복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어떤 것일까요? 평화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평온하고 화목함 또는 전쟁이나 분쟁, 일체의 갈등 없이 평온한 상태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세상은 상식과 관습, 법과 교육에 의해 평화로운 질서를 유지하고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지닌 욕심, 시기, 질투, 미움, 두려움 등은 참 평화를 이루는 길을 방해합니다. 사소한 말다툼에서 흉악한 범죄를 넘어 테러와 전쟁까지, 세상에는 참 평화를 위협하는 일들이 너무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에페 2,14)를 다시 새겨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평화를 이루신 분이고, 참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요한 14,27)

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가장 보잘 것없는 사람에게 더 큰 사랑을 베푸는 것, 욕심을 버리고 격차를 줄이며 살아가는 것, 홀로 앞서가기보다 손잡고 함께 가는 것이 더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실현하는 일입니다. 억울함과 절망 속에서 미움이 자라는 세상이 아니라 감사와 배려와 감동을 통해 희망을 키우

는 일입니다.

나 자신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정신과 재능을 신뢰로써 나누고, 인간의 품위를 존경하려는 의지와 형제애를 실천하며, 창조질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공동선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목 현장」 78항 참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평화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마태 5,9)

우리는 아버지 하느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평화를 꿈꾸는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체험한 아버지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평화를 부부와 가정 안에서, 그리고 이웃과 직장, 국가와 세계 안에서 이루어야겠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와 함께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저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라고 간청합니다.

◆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신부/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성인 말씀

육체를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의 영혼을 지옥의 불길에 던질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십시오.

- 성 아타나시오 -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남성철 베네딕도	송인선 안젤라
제1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이민상 요한	신중철 아브라함
제2독서자	이만석 미카엘	이순자 비비안나	정명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남 3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신덕례 데레사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박혜경 레나타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정진욱 노엘	한경숙 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 오늘 주일(1일, 매달 첫째 주일)은 성전 기금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 교리반 예비자 모집
 - 모집 및 전교 기간 : 4월3일 ~ 5월 22일
 - 환영식 : 2016. 5월 29일 11시 미사 후 강당
 - 교리 반 : 6월2일~12월 8일, 매주 목요일 8:10 ~ 9:10PM
 - 세례식 : 2016. 12.11 예정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310-796-6960
- ◆ 성모의 밤 행사 안내
 - 제목 :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미사
 - 일시 : 5월 6일(금) 오후 8시
 - 6일, 금요일 오전 미사 없습니다.
 - 7일, 토요일 첫 토요 신심미사 없습니다.

◆ 2016년 백삼위 성당 '영성 피정'

- 주제: 신앙 성숙과 쇄신을 위한 영성피정
- 강사: 강 요셉 신부 (구속주회)
- 대상: 전 신자
- 날짜: 6월2일(목)3일(금): 오후7시-10시30분
4일(토): 오전10시-6시 (고해성사), 오후6시-10시30분
5일(주일): 오후1시-6시
- 참가비 : \$30. 신청마감 : 5월22일
- ※ 9월 11일에 견진성사가 있습니다.
- 견진성사 대상자의 교리는 영성피정으로 합니다.
- 견진을 원하시는 분은 영성피정을 이수하시기를 바랍니다.
- 주관 : 성령기도회
- 문의 : 강 아네스 (310)780-0369

◆ 5월 안나회 모임을 임시로 변경합니다.

- 시간 : 5월1일(오늘 주일) 11시 미사 후
- 문의 : 한춘선 루시아 ☎ (310)781-0021

◆ 주일학교 여름캠프 등록안내

- 날짜: 7월 8일 (금) ~ 7월 10일 (주일)
- 장소: Oak Glen Christian Conference Center
- 대상: 3학년 ~ 12학년 주일학교 등록된 학생들
- 등록기간: 5월 22일 (주일)까지, 35명 선착순
- 참가비: \$60 (등록기간 후 \$85)

◆ 2016-2017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장학금 신청 안내

- 수혜대상 : 12학년(졸업생) ~ 대학재학생(1~3학년)
- 자격 : 본당 등록신자 및 등록신자의 자녀로 교회 활동 및 봉사에 참여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 신청기간 : 5월31일까지 마감

◆ 한국학교 공지사항입니다.

1. 말하기 대회
일시 : 2016년 8월 13일(토) 저녁 7시 예정
장소 : 학술대회 장소 (Holiday Inn , La Mirada)
주제 : '한국을 소개합니다.'
원고마감 :
- 5월 17일(화)까지 참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
2. 한국학교 성인반 모집
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8시30분
문의 사항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213)700-9399 또는 103skcecks@gmail.com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5월 1일 * 소공동체(하버/카슨): 김밥(\$4), 사발면(\$2)
* 주일학교 : 스파게티(1학년)
- 5월 8일 * Mother's Day : 친교자리 없음
* 주일학교 : 피자 (주일학교 자부들)

지나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미순 강태홍 고천용 구자운 김교복 김 명 김선영 김성택 김영덕 김 욱 김인성 김일선 김제성 김정아 김충섭 박정자 서영주 서재원 양영관 오강님 오명섭 이경태 이재정 이형삼 임한나 정남형 정정현 최길주 최열자 최지영 최진수 최태훈 홍석인 황지영	성전헌금	강미순 강태홍 고천용 구자운 김교복 김 명 김영덕 김제성 김충섭 박정자 서영주 서재원 양영관 이재정 이형삼 임한나 정남형 정정현 최길주 최열자 최지영 최진수 최태훈 황지영
	합계: \$4,445		합계 : \$2,135
주일미사헌금 : \$2,558	주일학교입금: \$341.21	감사헌금 \$100(이경태)	장학금 도네이션 \$10,000(임 순)

남가주 소식

◆ 5월 말씀과 함께하는 피정

- 일시: 5월7일(토) 오전10시~오후5시
- 주제: 잠언,코헬렛
- 회비: \$10(점심포함, 전날까지 신청)
- 준비물: 성경, 필기구, 개인첩
- 문의: 남가주 성서모임 (CBLM) ☎(714)521-1345
675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 남가주 제 28차 성령안의 새생활 세미나

- 강사: 강요셉 신부(구속주회)
- 일시: 2016.5.26(목) 오후 6:00~29일(주일)오후4시
- 참가비: \$150(숙박비 포함)
- 신청마감: 5월 8일
- 장소: 드폴센터 420 DATE STREET MONTEBELLO, CA 90640
- 문의: 각분당 기도회장, 또는 한테레사(714) 345-4791

◆ 일상 삶 안에서의 영신 수련

- 지도: 예수회 최준열 다미아노 수사
- 일시: 2016.6.4~2017년 3월초,매주 토2시~5시pm
- 장소: 성 아그네스 한인성당
- 문의: 정 도로테아(818)321-9505
장 켈마 (224)305-4443

◆ 2016 FIAT 장학금 프로그램

- 신청자격: 북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가톨릭 학생
(12th~ 대학, 대학원생), 북미주거주 코리안 어메리칸 신학생
- GPA 3.0이상
- 신청서 다운로드-www.fiat.org
- 신청마감-3/15 온라인접수시작~5/ 31/2016
- 신청문의-scholarship@fiat.org (714)702-9830

◆ 2016 FIAT 봉사인정 프로그램

- 자격: 북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가톨릭 학생 (9th~11th)
- GPA 3.0이상
- 신청서 다운로드-www.fiat.org
- 신청마감-~5/ 31/2016
- 신청문의-service@fiat.org (714)702-9830

◆ 제 3회 학생 성화 미술대회

- 대상: 유치부, 초등부(저학년,고학년), 중등부, 고등부 학생
- 주제: "예수님 이야기" ● 작품크기: 24x24 인치이내
- 참가비: \$10(Pay to: Mee Lee)
- 접수기간: 4월 15일 ~5월14일
- 문의: 가톨릭 미술가회 ☎(909)576-5773 (562)292-8999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2	장수영 패트릭 781-0787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3	윤미애 안나 560-7120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김정심크리스티나 490-9662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2	윤경옥 실비아 909-557-7490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3	박명순 안나 968-7600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3	김유미 사비나 850-2822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토런스 북 정영옥올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2	1탄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1 /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남해나 베네딕다 384-3289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4	이귀란 아녜스 617-3568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제 단체모임	1시
--------	----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독일에 간 첫해에 저를 가장 대혹한 것은 울창한 숲이었습니다. 바로 독일 낭만주의와 그림 동화를 탄생시킨 신비롭고 비밀에 찬 숲들입니다. 집 동네를 나서서 10분만 걸으면 프랑크푸르트 외곽 타우누스 산의 고즈넉한 숲이 펼쳐졌습니다. 대학에서 강의가 없는 날은 혼자 숲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온종일 책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나무 그루터기에 내려앉은 햇살이 어찌나 평온하던지, 누군가가 불쑥 나타나서 저를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들지 않았습니 다. 지금 생각 하니 겁 없이 아찔한 것을 한 셈이지만요. 대학에서 지도교수를 정하고 첫 면담을 할 때 그분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독일에 와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이나고요. 지체 없이 '숲'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한국에는 숲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럴까요. 국토의 70퍼센트가 산지인 나라인데요.

왜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숲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못 했을까,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국내에서 여행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숲에 감탄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라고요. 정치 사회적으로 억압과 긴장이 크고 마음이 답답했던 시절에 고교 시절과 대학을 거쳤고, 방학이 되면 농촌활동을 하러 가거나 가톨릭 학생회에서 함께 책 읽고 토론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아무 생각 없이 놀러 간다'라는 의미의 자유로운 여행을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시기에 저를 사로잡은 예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들어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였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처럼 좋아했는지도 모릅니다. 읽을 수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어 방대한 양의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면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올 거라고 믿었고, 깨달음을 얻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 알고 온종일 코를 책에 박고 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세월이 더 지난 뒤에야 오해하고 있던 이 성경 구절의 맥락을 새롭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자유를 얻는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말씀은 쉬운 듯하면서도 어렵고, 자연스러운 듯하지만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자유로워지려면 모든 규범을 벗어나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말씀 안에 머무르라고 하시니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요한 8,37)

예수님은 또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사람에게 전해주려고 오셨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일 자리를 우리가 온갖 지식과 욕망과 허영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진리를 통해 자유롭게 되려면 우선 본질적이지 않은 많은 것들을 버리고 숲 속의

빈터처럼 햇살을 받아들일 고요한 공간을 제 안에 먼저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조차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 이용숙 안젤라 / 음악평론가

[교리상식]

가톨릭은 마리아교인가요?

☞ 가톨릭의 성모 신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주교는 마리아교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하느님을 믿는 종교이며, 하느님께서 인류의 구세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은,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선택을 받았고, 예수님이 공경하신 분이며,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낳고 기른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 「PD 하느님, DJ 예수님 / 바오로딸

[길을 찾는 그대에게]

성사를 볼 때마다 찝찝한 의무감에 성사를 봅니다. 저 자신이 완벽한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개'해야 할 만큼 큰 죄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제가 교만하다고 느껴지지만, 회개해야 한다면 저 자신의 어떤 점을 뉘우쳐야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 창세기에서 인간의 가장 첫 죄는 '선악과'를 따 먹은 것입니다. 이것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남의 것을 훔친 도둑질이고, 신앙의 의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하느님의 명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은 죄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잘못은 그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느님 이신데, 그 기준을 바꾸어 인간이 스스로가 그 기준이 되려 한 것이 진짜 잘못입니다. 하느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느님의 자리에서 서려고 했던 것이 '원죄'이고,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 중심이 아닌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내 기준에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내가 중심이 되어 편 가르기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듣고 그 뜻에 따르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회개를 예전에는 '회두'라고 했습니다. 고개를 돌린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이 아닌 '나'를 기준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하느님을 향해 다시 방향을 돌리는 것이 회두이고 회개입니다. 지금 내 삶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노력한다면 무엇이 나의 죄였는지 보일 것입니다.

절대자도 전능하신 분도 아닌, 그저 내가 만든, 내 생각 속의 하느님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계 너머에 계시는 분이 진짜 하느님입니다. 그 초월의 하느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을 훌쩍 뛰어넘는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 홍경완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학장

예수님과 함께 처형된 강도들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여러분이 나에게 끌고 온 예수라는 사람을 신문해 보았지만,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하면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무엇이냐 말씀하셨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 23,1-31

한 로마 군인이 채찍으로 예수님에게 매질하고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쓰게 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목과 발등 위로 대못을 박고 로마 병사 여럿이 달려들어 예수님을 대단 십자가를 똑바로 세웠습니다. 다른 두 죄수도 처형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이냐 말씀하셨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 23,32-34

예수님을 못 박은 병사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사형수의 옷을 나누어 가는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쳐다보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 중 하나가 숨을 몰아 쉬며 예수님에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편에 있던 죄수는 무엇이냐 말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 23, 35-43

예수님의 곁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강도 중 회개를 한 사람은 죽기 바로 전에 구원을 받아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죄를 뉘우쳐야 합니다. 회개한 그 강도는 예수님께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관호 속을 채워보세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를 뽑아 그분의 ()을 나누어 가졌다.(루카 23,34)

그리고 나서 “예수님, ()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와 함께 ()에 있을 것이다.”(루카 23,42-43)

내 행복의 기술

얼굴이 커서 마스크 팩을 붙일 때마다 울적입니다.

눈, 코, 입 제대로 맞질 않고

이마는 절반밖에 가려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딱 맞았습니다.

심지어 크기까지 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가만 보니 남자용이었습니다.

당혹도 잠시, 작은 거 붙이고 울적하기보다

남자용 붙이고 행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행복합니다.

-이영 아네스-

◆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9:30~11:30(오전)	2:00~7:00(오후)
수	CLOSED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가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001 S. 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1-855-388-4141

씨니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저희는 유족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늘 3명 이상이 예의를 갖춰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장례플랜전문: 제니퍼 오 : 213-446-9557
장례보험/장례적금/모지매매
모지를 사고 파실 때 문의: 310-908-8823

할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 #422 LA, CA 90006
☎(213)480-0911

Kim's Music & Art School

Piano, Violin, Clarinet, Saxophone, Cello, Flute, Guitar
창의력 발달 아동 미술, 포트폴리오 준비
*주말 ROBOTICS & LEGO수업
www.kimsmusicsschool.com
☎310-387-5772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홀리 크로스 묘지분양

합장묘지, 크립트, 남골당
Jean Kim
☎ (213)842-8366

JKKim@LACatholicCemeteries.org

LASER DESIGN Jewelry & Design

625 S. Hill St. Ste 244
Los Angeles, CA 90014
213-955-0038 김시문*마리암

이경희(바오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 213-385-4646(imin)
3435 WilshireBl.#1110 LA(에쿼터블)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현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N 은행 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제마-

한국 장 의 사

LA(FD74), 놀워(FD1134)

(562)868-0788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0883 cell

suziechoihomes.com



가 주 장 의 사
California Mortuary

정영목 목사

President Yung M. Jung

Lic. #FDR1124 / OBP6588 / californiamortuary@gmail.com

LA OFFICE

(FD2256)

(213)568-3025(24hrs)

2717W.Olympic Bl.

#204

LA, CA 90010

MAIN OFFICE

(FD1648)

(562)622-9393(24hrs)

Fax (562)622-4843.

9830 Lakewood Bl

Downey, CA 90240

South Bay Office

(FD2253)

(310)817-4337(24hrs)

16229 Western Ave.

#8

Gardena, CA 90247

서박사 수학 과외지도

K-12, SAT ACT 책임지도

서울대, 아이오와 대학원, 교직경력

☎310-627-7204 서혜정 마르타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Max Cargo Inc.

International Air/Ocean Freight Forwarder

국제 항공/선박 운송/NVOCC

정충로 안토니오

(310)323-8100, Fax (310)323-8884

19825 Hamilton Av.

Torrance, CA 90502

플라자 약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불란서 안경 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3104 W. Olympic Bl. L.A., CA 90006

(213) 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교우 특별 봉사)

State Farm

Heather Chong (정혜경) 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한스 전자

냉장고, 세탁기, TV, 가전제품

TEL: 323-732-7131

1200 S. Western Av. LA, CA 90006

한 프란치스코

ECONO LUBE N' TUNE

이코노 종합 정비

타이어 알라인먼트 스모그 체크 브레이크

310-534-0150 김클라라

2514 SEPULVEDA & CRENSHAW



몬테소리 토요영재학교

U.S JMI KIDS COLLEGE

평생을 좌우하는 3세~7세 두뇌 발달 몬테소리 토요

영재학교에 맡기세요 전화 : 213-434-1314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